

北, 정말 미사일 쏘아 올리나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2호' 발사를 위해 이미 연료를 주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에 대한 자위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할 경우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처하기로 했다.

○ 발사준비 어디까지 왔나=정부는 미·일 당국과 함께 수집해온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18~19일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 수준 또한 발사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당국은 미사일 본체가 발사에 장착된 징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판단 아래 미사일 발사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설치된 미사일 시험발사대 주변에 연료통들이 옮겨져 있다는 정보까지 전해지고 있는 만큼 연료주입에 곧바로 돌입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거나 연료주입이 이미 끝났다는 게 정부의 상황인식인 것으로 추정된다.

○ 정부 대응책 마련에 부심=우리 정부는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으로 외교책에도 풀 가동해 중국, 러시

'대포동2호' 발사 임박...정부 대응책 부심 美·日 "요격 등 자위적 예비조치 강구"



아 등에 북측의 도발적 행동을 만류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미사일 발사가 장기 교착국면에 빠진 북핵 6자회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강화를 통해 북핵 교착상태를 풀어보겠다는 우리의 노력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컨트롤타워 격인 청와

대와 외교·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주말과 휴일인 17~18일에도 대부분 출근, 우리 당국과 관계국 정부에서 파악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 미·일 잇따른 경고, 요격에 나서나=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 자국민들의 머리 위로 로켓이 날아간 경험을 한 일본은 북측에 경고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냈고 미국은 '자위적 조치'와 '예비적 조치'를 언급하며 미사일 발사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소식통이나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대포동 2호가 발사될 경우 미국이 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손대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자위적 조치'에 요격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동해상에 배치된 잠수함에서 크루즈미사일을 발사해 타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동해상에 배치된 미 이지스함(이시스급 무기체계를 갖춘 함정)에서 스탠더드 미사일인 SM-3를 발사해 대기권 밖에서 대포동 2호를 요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 어떻게 되나

김태홍 문광위, 김성곤 통외통위장 거론

17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6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 일정으로 열리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광주 북)과 김성곤 의원(여수 갑)이 각각 문화관광위원회 및 통일외교통상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태홍 의원 김성곤 의원

문광위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육성을, 통외통위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담당하고 있어 지역 출신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는다면 지역 최대 현안사업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 열린우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상임위원장 선정을 놓고 당내 대선 의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1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배정을 발표한다.

특히 이번 상임위원장 선정에는 당

기고 있다. 김성곤 의원의 통외통위원장 선정보도 관심거리다. 여수가 지역구인 김성곤 의원이 통외통위원장을 맡는다면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단 김성곤 의원이 통외통위를 맡을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기에 전남도당 위원장인 유선호 의원도 보건복지위원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에서는 법사위를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의장단은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9개 상임위 및 특위 위원장은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각각 선출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北 선물 생각한 적 없다"

DJ측, 강진 고려청자 주문·제작 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때 북측 인사에게 줄 선물로 제작 의뢰된 것으로 알려진 강진 고려청자에 대해 김 전 대통령측이 이를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강진고려청자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께 김 전 대통령의 가까운 인척인 이모(78)씨로부터 방북때 쓸 것이라며 청자 제작 주문을 전화로 받은 뒤 최근 작업을 모두 마쳤다.

제작한 청자는 국보 68호를 그대로 재현한 높이 50cm 가량의 '청자상감 운학문배' 7점 등 모두 30점이며, '평화통일' 글씨 밑에 '후궁 김대중, 수송 이희호' 등의 글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 비서관인 최경환씨는 "아직 북한 방문이 확정되지 않아 선물마련은 물론 청자 자체를 주문·제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 인척인 이씨는 "김 회장이 방북 선물에 새길 김 전 대통령 휘호를 하나 받아달라고 해 그렇게 해 줬다"며 "주문한 청자는 김 전 대통령의 방북 선물용이 아닌데 사업소 직원들이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kwangju.co.kr

함평 복분자주 北에 첫 선

6·15 대추전 대표단에 선물·김정일인 특제품

함평지역에서 생산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복분자주 '레드마운틴'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동포들에게 첫선을 보인다고

함평천지복분자농조합법인(대표 김성모)은 6·15공동선언 6주년기념 민족대추전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 170여명 전원에게 복분자주 '레드마운틴' 1박스(박스당 6병)씩을 선물했다. 또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달라'는 기원을 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최근 정품 고급 와인 형태로 연구 제조된 레드마운틴 특제품 10박스를 선물했다.

함평 복분자주 '레드마운틴'은 6·15 공동선언 6주년 기념 민족대추전과 노벨평화상 광주 정상회의 공식 간배주와 만찬주로 사용돼 호평을 받았다.

이 회사 김 대표는 "간배주로 사용한 레드마운틴이 북측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어 지역 농민들의 동포애를 담아 선물로 마련했다"며 "최근 북분자 수확철을 맞아 농가들이 괴일 재배된 복분자 관료에 애로를 겪고 있어 북분자 재배농가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오늘 임시국회 개원...쟁점과 전망

사학법 재개정·비정규직법 압초

6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12일간의 '미 회기'로 문을 연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의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에 따라 입법부가 새 진용을 갖추고 낡은 임기 2년간의 첫 시동을 건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앞길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 사학법 재개정 재격돌 우려=4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벌여졌던 여야간의 극한대결 양상이 고스란히 재연될 공산이 커 보인다.

한나라당은 '회기내 재개정'을 공언하며 거세게 밀어붙일 태세다. 우리당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분적인 보완이 아닌 근본

적 수술을 겨냥한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를 들어준다면 사학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맞서고 있다.

○ 비정규직법, 금산법 다른 '셈법' 여전 = 4월 임시국회에서 펼쳐졌던 여야간 복잡한 셈법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법안일수록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여전히 변수다. 충분한 논의를 촉구하며 수 차례 법사위를 접거해 법안 통과를 저지한 민노당은 이번에도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처리를 시도할 경우, 육탄전도 마다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산업



김영선 신임 한나라당 대표 첫 출근 김영선 한나라당 신임 대표가 일요일인 18일 오전 영창동 당사로 출근, 사무처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개선편(금산법) 개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 로스쿨법·국방개혁법·민생법안 '파란불'=여야는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로스쿨법안과 국방개혁

기본법안의 처리에는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선언적 합의사항이어서 실천이 담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광주광역시의회는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8일간 제152차 임시회를 열어 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광주시 11건, 시교육청 4건 등 조례안 15건, 광주시와 교육청 등 추가경정예산안 2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19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정될 조례안에는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 등이 있으며 동의안에는 중국 광저우 시장의

광주 명예시장 추대건과 월드컵경기장 플프연습장 기부채납건이 있다.

또 상정될 추경예산으로는 시의원 의정비와 지하철 적자보전, 버스준공예 예산 등 신규사업보다는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펀드와 분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 항목이 대부분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인 영어 여름방학 영어 캠프

여름방학 영어 캠프

의인 영어 캠프

www.winetel.com

1588-8010

한국교육과 함께하는 의인